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7회)

전도관 제9편

이만제단 시대 제6부

제9편
이만제단시대 제6부
一.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4) 피는 곧 생명이다
5) 핏속에 죄가 있다
6) 내 피가 어떤 상태인지 시험해보라

4) 피는 곧 생명이다

영모님은 “피는 곧 생명이다(창9:4)”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다 쏟아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더러운 피를 맑은 피로 바꿔 온전함을 이루어 구원도 받고 영생도 한다고 하시면서 맑은 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서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는 성령으로 임한다고 하였습니다(요1서5:4-9). 고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논리가 정연한 설교 말씀이었다. 지금 필자가 이와 같은 말까지 소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실체를 알고 비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도 지지 않은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지금에 와서는 그와 같은 설교는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지만 당시의 영모님은 예수를 업고 나오신 때이므로 불가피하게 그와 같이 하신 것이었다. 후에 예수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뒤집어엎을 때의 영모님의 과감하고 놀라운 결단력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성찬식(聖餐式)이란 것이 있다. 요한복음 8장 47절부터 써어 있는 내용으로 예수가 “내 살은 참먹을 양식이요 내 피는 참마실 음료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라고 한 것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고지식하게 그 말 그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의 살로 알고 먹었다고 하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예수의 피로 알고 먹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성경에 무식해서 그렇

게 하는 것이라고 영모님은 기독교회를 호되게 처벌했던 것이다.

예수의 살도 피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도 피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 말씀은 다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뜻인데, 목사들은 무식해서 그 뜻을 모르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는 무식쟁이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무식하여 많은 양떼들을 다 지옥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성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이 미친 척하고 그냥 그렇게 성찬식(聖餐式)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천주교 및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또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는 “능력이 없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세례(洗禮)라는 뜻은 씻는 예법을 말한다. 무엇을 씻는다는 말인가? 죄를 씻는다는 말이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가? 말도 안된다. 다만 요한이 말한 대로 성령 세례를 줄 때까지 그림자로 행하는 것 뿐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서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우리는 성령을 주심도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설명한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한다(고전13:10)고 한 말씀 대로 물

세례는 온전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폐해야 할 때인데도 물세례를 고집하는 아볼로의 제자들을 깨우친 것이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아볼로의 제자와 같은 자들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위시한 전 기독교인들이 다 물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모님은 이러한 기독교의 작태는 성령과 상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대가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묵 2:5). 영모님의 이와 같은 완벽한 성경적인 논리 앞에 전 기독교인들이 할 말을 잃고 만 것이다. 기성교회를 딱치듯 패도 대항할 엄두도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해: 영모님은 ‘피는 곧 생명이다’(창9:4)라는 논리를 위와 같이 예수의 흘린 피로 연결시켜 설명을 한 것이다.]

이 글을 보시는 승리제단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배꼽잡고 웃을 내용이겠으나 이 논리의 성경적 완벽성은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신(神)도 완벽하게 속아 박태신 장로가 충실한 예수의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준 한 논리였다. 영모님은 예수의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완벽하게 예수를 속이고 온 것이다. 영모님 당신은 충실한 예수의 종이라고 계속 증거하셨다. 독자 여러분은 궁금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되는 글의 결론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 핏속에 죄가 있다

영모님은 죄의 종류로 원죄(原罪) 유전죄(遺傳罪) 자범죄(自犯罪)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원죄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를 말하고, 유전죄는 인류 최초로 지은 원죄가 자손에게 피로 유전되어 전달된 죄를 말하는 것이고, 원죄와 유전죄를 받은 자손이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끝도 없이 자손에게 이어지면서 또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자범죄를 지어 가중된 죄가 6000년간 엄청난 죄덩어리로 커져서 지금 인류를 죽게 만든다고 하였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다(롬 6:23).

그러면 이와같이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의 죄는 우리 어디에 있는가? 그 죄는 몸 속에 흐르는 피 속에 있다고 하였다. 그 피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씻을 수가 있다고 하였고 그 피는 성령으로 받아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드럼통에 뽕물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자. 그 뽕물이 가득 들어 있는 드럼통에 맑은 수도물 호스를 연결시켜서 계속 수도물을 연결시키면 맑은 물이 들어가고 드럼통 물이 넘쳐나고 하며 반복하다 보면 결국 맑은 수도물로 화하고 만다고 설명을 하였다.

우리 전도관 식구들은 항상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뽕물 드럼통에 수도물을 연결시킨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맑고 깨끗한 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피는 곧 생명(창 9:4)’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피로 100% 이루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모님은 피의 원리를 종교사상 처음으로 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6) 내 피가 어떤 상태인지 시험해보라

하루는 영모님이 단에서 각자의 피가 어느 정도인지 안 믿는 사람들과 피를 뽑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관에 6개월 이상 나오고 안찰을 네 번 이상 받은 사람 중에 한 번 피를 뽑아 시험해 보라. 전도관 안 나오는 사람의 피는 폭풍 썩을 것이고 우리 전도관 사람의 피는 썩지 않고 향취가 진동할 것

이다. 자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영모님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데도 다들 용기를 내지를 못했다.

그러던 중 메리야스 공장을 하는 마산 제단의 황모 장로가 용기를 내서 친형과 피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고 영모님께 보고를 했다. 전도관에 나오는 분은 유일하게 황모로 한 분 뿐이어서 항상 전 가족들에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형과 피를 뽑아 비교해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두 형제분은 혈액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 유리관에 넣고 각자의 이름을 써 붙이고 병원에 보관시키고 돌아왔다.

그렇게 해놓고 온 황모로는 걱정이 되서 안절부절하고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불안해 하던 황모로는 자기의 불안한 심경을 영모님께 말씀드리면서 “괜찮겠습니까” 하며 불안해 하니 영모님은 “염려하지 말고 믿고 나가라”고 힘을 주었다. 일주일 후에 가보기로 했지만 불안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2주일이 지난 때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서 같이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간 두 형제는 보관한 피를 담은 두 유리관을 찾아 보았다. 먼저 꺼내온 형것을 보았다. 그 유리관 속의 피는 유리관 위에는 물만 있고 밑에는 까맣게 풀어진 것들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관 마개를 여니 안에서 구역질인 날 것같은 엄청난 썩은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형의 피는 완전히 썩은 것이었다.

황모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내 피도 저렇게 썩으면 어떻게 하지! 내 피도 생강하면서 정신이 아찔해진다. 드디어 황모로의 피가 나왔다. 유리관을 보았다. 빨간 피색깔이 선명하다.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그 유리관을 받아서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유리관 속을 들여다보니 꽃분홍 색깔로 빨갛게 피가 살아나고 있었다.

황모로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다. 어떤 든 이겼다. 동생의 유리관을 본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질려 있었다. 이와 같은 두 형제의 피시험은 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부친이 그 내용을 듣고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 같은 피를 받은 똑같은 아들들인데 한 명의 피는 썩고 한 명의 피는 썩지 않고 빨갛게 살아나고 있으니 아버지로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이 피시험을 계기로 황모로 집안은 아버지를 위시해서 형님 가족 등 온 식구가 전도관에 열심히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되어 전도관에 나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피가 맑아지고 썩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 전도관 사람들은 오직 전도관만 구원이 있다는 영모님의 말씀을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다. 또한 피가 생명이며 피가 맑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영모님의 말씀도 100% 확신을 갖고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

영모님은 이와 같이 핏속에 죄가 있고 피만 맑히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최초로 피의 원리를 증거하였지만 영과 육이 일체라는 원리를 설명하시지를 못하셨다. 피가 생명이라던 피는 분명 물질인데 물질인 피가 맑아져서 죽지 않게 된다면 분명 영과 육은 일체라는 확실한 논리까지 아울러 알려 주어야 했다. 그러나 영모님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하셨다. 결국 완성의 주님이 출현하셔야 완벽한 영생의 원리인 피의 원리가 설명이 되게 되는 것이다.*



爲之於其未有

위지어기미유

행함은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해야 하며

도덕경 64장(1)

수행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행복은 몸으로 느끼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을 얻고자 함이다. 몸을 꾸미고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원하는 행복을 위한 것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자유롭고자 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수양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하는 것의 그 행동의 근저에는 마음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음속의 수많은 욕구의 소리가 사람의 행

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인데, 천태만상의 마음이 있기에 천태만상의 행동들이 보여진다. 마음속에 수많은 욕망과 잡념이 표출되어 수많은 다양한 양태를 낳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

세상이 왜 이리 혼란스러울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사투하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이 말할 수 없이 무섭고 공포스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 죄(욕심)와 악(무절제)을 먹고 자란 악마의 마음을 품고, 악마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대체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들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로부터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실체를 밝히려려고 줄곧 애를 써왔다. 정신분석학이나 철학이나 하면서 여러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실체에

대한 정답은 오리무중이다.

마음의 신비를 정확히 밝히려치면, 마음은 정확히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하겠다. 바로, 양심과 욕심이다. 바로 이 세상은 양심(道義, 善, 神)과 욕심(무도無道, 악, 魔, 마귀魔鬼)이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양심의 크기와 강도가 욕심의 크기와 강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이 극심하고, 생명의 존재가 초초로 위협받고 있다. 이런 세상을 불안과 공포를 조성케 하는 귀신세상(마귀세상)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귀신은 다른 것이 아니다. 신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존재라고 했다. 영은

사람의 마음(의식)이다. 마음이 바로 영이자 신이다. 오만 가지 마음이 일어나므로 오만 가지 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귀신단지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속의 욕심은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양심이다. 욕심은 가짜 나이고, 양심이 진짜 나이다. 그런데 욕심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고 있을 때쯤이다. 욕심에 따라 살면, 가짜 내가 도를 닦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선악과와 같아서 먹으면 고통스럽게 죽는다. 양심에 따라 살면, 참 내가 도를 닦으면 순간은 손해나는 것 같고 부담이 되지만, 가슴 뿌듯한 보람과 즐거움이 되어 몸과 마음이 바람과 구름처럼 동풍 뜰며 생명과(불로초)를 먹는 것과 같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선악과(독초毒草)와 생명과(불로초不老草)가 무슨 어려운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단순명료한 것일 줄 몰랐을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논다는 것 등

이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마음(거짓자아)의 행복을 우리의 기본과 감정이 요구하는 돈과 물질, 향락 따위를 추구하는 대로 움직이면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 온 것이다. 우리가 처처로 직면하는 곳에서 우리 마음(거짓자아)이 원하고 바라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유위의 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길과 방향은 행복과는 천길 만길 떨어질 뿐이다. 사람의 욕심이 되는 가짜 나의 요구에 따라 살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것이다. 양심이 되는 진짜 나의 요구에 따라 살면 항상 즐겁고 맑고 고요하게 길이길이 행복하게 되는 그것이 수도의 참 목적이다. 참 자아가 되는 양심이 도를 닦는 일체 행위는 무로 도원(武陵桃源)과 같은 지상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무아와 무위의 행이다.

易持也(이지야): 편안함이 유지되면

其未兆也(기미조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易讓也(이모야): 편안함이 피해야 하는 것이나

其脆也(기취야): 그 마음이 가벼워져

易判也(이판야): 편안함이 갈라지면

其幾(微)也(기기(미)야): 미세한 생각으로

易散也(이산야): 편안함이 흩어져 버린다

爲之於其未亂也(치지어기미난야): 행함은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해야 하며

治之於其未亂也(치지어기미난야): 다스림은 생각이 어지럽지 않을 때, 해야 한다.

合抱之木(합포지목): 아름드리 나무도

作於毫末(작어호말): 털끝 같은 썩어서 일어나고

九成之羸(구성지대): 구층 누대도

作於(累)土(작어(루)토): 한 삼태기 흩어서 지어지며

百仞之高(백인지고): 백 길 높이도

始於足下(시어족하): 발바닥 밑에서 부터 시작된다.*

其安也(기안야): 마음이 안정되고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6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